

부산시, 하반기부터 전기차 구매하면 100만원 추가지원

전국 최초 전기차 '지역 할인제' 참여 제작·수입사 50만원 할인 부산시 50만원 구매 보조금 지원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 자동차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 자동차 지역 할인제는 부산시민이 지역 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원을 할인해주고 시가 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부산의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구매 보조금에서 총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자동차 지역 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G



부산시청.

/부산시

S글로벌 ▲일진정공 ▲EVKMC 총 4곳이다.

지난 6월 지역 할인제 참여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이들 업체를 모집했다. 지역 할인제 대상 차량은 해당 제작·수입사의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구매하는 택시 운전사,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할인제 대상 택시용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구매 보조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지역 할인제로 받는 100만원의 지원 혜택에 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돼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할인제 신청은 한

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 자동차 총 5032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950만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500만원이다. 구매 차량의 권장 소비자 가격별로 구매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기 자동차 지역 할인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이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에 매진해 맑고 쾌적한 하늘이 있는 부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6개 시·군 '농촌 왕진버스' 운영

경북도는 지난 12일부터 올 연말까지 도내 6개 시·군에 '농촌 왕진 버스'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소화, 고령화된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도는 올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왕진 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6개 시·군 10개소(구미시 2곳, 상주시, 문경시 2곳, 성주군 2곳, 봉화군, 울릉군 2곳)가 선정돼 사업비 2억4200만원을 확보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울산시

이달 정기분 재산세 1534억 부과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5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울주군 401억원, 북구 258억원, 중구 196억원, 동구 156억원 순을 보였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전남도, 인구영향평가 제도 시범도입

지방소멸위기·인구감소 문제 극복 주요 사업 목적 등 인구관점 분석 인구증가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전라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각종 정책, 사업 등에 인구구조와 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해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은 지방소멸위기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사업 목적과 내용을 인구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정부보다 먼저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해 제도 도입에 나섰다.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용역'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쳤다.

대상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중 개별사업 특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출산을 제고와 전입인구 확대, 생활인구 유입, 청년 비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범 적용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선 1차적으로 사업 담당자가 일차리와 출산, 양육, 거주환경 등 인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체크리스트해 자체 진단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포함한 2차 심층평가(정성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를 사업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에서 세번째)는 14일부터 도내에 많은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안동시 길안천 목계교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경북도, 폭우 피해지역 안전관리상황 점검

이철우 지사, 직접 현장 방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3일 안동시 길안면 목계리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지역민과 대화를 나눴다. 이는, 14~15일 지역에 많은 폭우가 예상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번 장마로 도내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연일 피해 시·군을 찾고 있다.

경북도에는 지난 6~10일 평균

194.6mm의 강우로 하천수위와 토양함수량이 증가해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이 발생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군 부단체장들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기존 대피장소인 마을회관, 경로당을 벗어나 지역 주민이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u57@

MZ세대에 특화된 '정읍물빛축제'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열려

'여름'과 '젊음', '힙합'을 연계한 차별화된 젊음의 여름 축제가 내달 정읍천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열린다.

시 '2024 정읍물빛축제(이하 물빛축제)'를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 올해 물빛 축제는 정읍의 대표 명소인 정읍천과 지난 6일 개장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전국 최초 복합형 바다분수인 미로분수와 연계한 축제로 기획됐다.

올해 축제에서는 낮에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게임과 물놀이 등 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저녁 7시부터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인기가수와

그룹의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다.

특히 MZ세대에 특화된 아주 특별한 축제를 내세우고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EDM(Electronic Dance Music)을 기본으로 인기 걸그룹 하이키와 내로라하는 힙합가수인 던탈릭과 김효은, 크라이넛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육종완 밴드가 함께하는 공연을 준비했다. 특별히 본 공연에 앞서 지역의 끼 많은 청소년을 위한 자유무대도 운영한다.

여기에 물빛축제에 걸맞게 물총싸움과 물풍선게임 등 수중운동회는 물론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와 워터롤 등 다양한 물놀이기구도 설치한다.

/정읍(전남)=양수영 기자

하동군, 벼 병해충 항공·공동방제 본격화

방제시기 앞당겨 선제 대응

하동군이 벼 주요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 또는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공동방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최근 집중 호우와 잦은 강우로 농작물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중국발 비래해충인 흑명나방, 멸강나방, 벼멸구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군은 공동방제 규모를 확대했다.

공동방제 횟수를 지난해부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전체 벼 재배 농가 대상으로 3793ha에 13억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방제로 최고 품질의 하동벼를 생산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염으로 중국에서 날아온 흑명나방이 급속히 번식해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올해는 방제 시기를 앞당겨 1차는 7월 10일~20일, 2차는 8월 10일~20일 진행한다.

적극적인 초기 방제는 병해충 발생 밀도를 낮춰 큰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벼농사에 큰 피해를 준 흑명나방이 조기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는 흑명나방의 1회기 발생 시점과 발생 정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찰 포장과 농가 관찰포장 등 발생 여부를 세밀히 관찰해 적기 방제를 위한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솔트룩스 韓영화 르네상스 펀드

부산시는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솔트룩스벤처스, 부산영상위원회와 '솔트룩스 한국 영화 르네상스 펀드'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화·영상 펀드 결성과 관련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솔트룩스 한국 영화 르네상스 펀드'는 233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며 시는 부산 지역 영화·영상 산업의 육성과 지역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출자자로 참여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안동시

수출 역량강화 참여기업 모집

안동시는 15일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내수 수출기업화 전환 촉진을 위해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안동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거나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이다.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이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당시까지 1만 불 이상 수출, 해외박람회 참여 실적기업이다.

지원은 수출 실적 1만 불 당 100만원, 기업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수출직불금 및 기업별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는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이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